

# 온라인 원격 학위 과정에 대한 고찰 : 미국의 음악교육 석사학위 과정을 중심으로 Online Master's Degrees in Music Education

이가원  
목원대학교 사범대학

Ka-won Lee(kwlee@mokwon.ac.kr)

## 요약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은 원격교육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는 미래의 새로운 교육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학위 취득을 원하는 현직 교사들에게 온라인 원격교육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 비용과 같은 걸림돌 없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미 음악교육 분야에서 온라인 석사학위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Music(NASM)이 승인한 총 8개의 대학을 선정하여, 입학요건, 프로그램의 특징,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온라인 원격교육의 편리함을 담보로 한 양적 팽창과 함께 온라인 교육과정의 질에 대한 우려도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을 위한 교수진의 재교육 뿐 아니라, 기술적 지원에 대한 문제, 지적재산권, 소유권과 같은 행정적인 문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적 문제, 온라인 교육과정의 계획, 개발, 평가를 위한 기준 마련 등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하지만,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이론과 실제사이의 격차를 줄여 나간다면 궁극적으로, 지리적, 시간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심어 : | 온라인 원격교육 | 음악교육석사학위 | 교사교육 |

## Abstract

Online education is a new domain of learning that combines distance learning with the practice of face-to-face instruction utilizing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s technology continues to develop and the needs of teachers require better access to higher learning, online graduate degree programs can be a valid alternative. Some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have already offered graduate degrees in music education through the online distance learning. In this study, 8 accredited online graduate degree programs in music education were identified in terms of curriculum requirement, program requirement, and admission requirement. Online programs offer considerable benefits of convenience, while their drawbacks relates to the quality of learning, feelings of weaker interpersonal interaction. More researches need in order for online music programmers to achieve higher standards of instruction and to inform other disciplines in the fields of arts education and the performing arts.

■ keyword : | Online Distance Education | Graduate Degree in Music Education | Teacher Education |

## 1. 서론

정보산업사회의 변화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빠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교육부문에든 엄청난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그 중, 원격교육 시스템은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스템을 확대시키면서 그 변화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다. OECD는 21세기 국가 경쟁력 지향을 위한 평생학습사회 구현의 요소로 원격교육의 활용과 발전을 제시하고 있다[1]. 이는 기존의 교육방식이 가지는 시간, 장소, 대상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교육기회의 확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계발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사들이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현직 교사들의 고등 학위 취득은 전문성 개발이라는 측면 외에도, 명예와 자존감 향상 혹은, 호봉인상과 같은 실질적인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사가 새로운 학위과정에 등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현직 교사의 학위 취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제기되고 있다. 현직 교사들은 온라인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첫째, 스케줄의 융통성과 접근성에 대한 한계를 없애주는 편리함을 들 수 있다[2]. 두 번째로는, 낮은 간접비용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3].

원격교육의 도구인 디지털 테크놀러지는 공유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술적 자원과 교육정보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전통적 교수방법을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교사와 학생 간에 직접적인 대면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전통적 방식이 아닌, 통신·라디오·텔레비전·컴퓨터 등의 매체를 통해 일정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이루어지는 원격교육의 보편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인터넷과 웹의 급속한 성장은 컴퓨터의 가상공간을 이용한 교육까지도 현실화 시키는 단계에 이르러

되었다. 이는 온라인 토론과 공동 프로젝트 해결 등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으로 면대면의 상호작용을 보완하고, 학습자에 의한 자율학습과 개별학습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대학과 기업 등에서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이버대학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으며, 정규 교육기관으로 인가받은 원격대학원을 통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2001년에 사이버 강의를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원격대학이 처음 설립되었으며, 방송통신대학에 사이버 대학원이 개원하였다. 현재, 21개의 사이버대학이 운영되고 있으며 25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4]. 최근, 많은 대학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통합학습체제로 구성된 원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즉, 온라인 수업을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출석강의를 실시하며, 온라인상에서 학습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출석 및 진도체크, 온라인토론, 과제지도를 위한 커뮤니티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원격 교원연수기관이 39개소가 지정되어 교원연수의 내용을 특성화하고 있으며, 온라인 강좌로 등록된 200여개에 이르는 포탈 사이트는 초등학생의 과외부터 대학학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격교육 도입을 가속화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음악교육도 이러한 시대 흐름에 예외될 수 없다. 음악분야에서는 아직 도입 초기단계이지만, 다양한 온라인 강좌가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음악교육은 대학 및 실용음악학원 등 오프라인 기반 전문 음악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온라인 교육은 시·공간적 제한을 극복하고 학습자 주도의 개별 학습을 통한 쌍방향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음악교육방식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5].

원격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계속적 개발로 온라인 학습을 위한 환경이 갖춰지고, 교사들의 고등교육 기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온라인 학위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현재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악교육 전공 온라인 석사학위과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미국은 82년부터 원격교육을 정규

학위과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90년대에 이미 음악교육 분야에서도 원격교육을 통한 학위를 수여하기 시작하였다.

NASM(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Music)이 승인한 음악교육 대학원의 온라인 과정 프로그램이 어떠한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이들의 입학요건, 프로그램의 특징, 교육과정을 조사하고, 학위과정의 진행과정을 학교 홍보책자와 홈페이지, 개별 이메일을 통해 알아보려 한다. 하지만, 음악교육석사학위 과정 중 음악교사 자격증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실제 교육현장에 나가서 지도하는 과정들이 포함되어 온라인 수업으로만 이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교원자격증과 연계되지 않은 교육과정만을 고찰하였다.

이는 온라인 원격교육과 전통적인 집체형 교육을 비교하고자 함이 아니며, 국가기준의 부합성이나 평가, 유용성 등의 관점에서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새로운 학위취득 방법으로서의 가능성을 미국대학들의 사례를 통해 고찰해 봄으로써, 현직 교사들을 위한 음악교육 석사과정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음악분야의 온라인 원격교육과정의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윤곽을 파악하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안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원격교육의 개념

‘원격교육’은 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교육자원에 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열린교육 및 평생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방법론이다. 이는 강사와 학습자간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 새로운 교육체계로, 기술공학의 발전과 함께 구체화되었다[6].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원격교육’이란 교수자가 학습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매개로 하여 실시되는 새로운 형태로, 기존의 교육방법과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원격교육은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분리를 통하여 전통적인 면대면 교육과 구분되며, 교수자와 학습자의 연결은 공학적 매체를 활용하게 된다. 학습 자료를 기획, 준비하고 학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교육조직이 관여하게 되므로 독학과는 구분이 되며,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의 제공으로 대화를 통해 배우거나 스스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있다. 학습의 전 과정을 통하여 면대면 혹은 전자적 수단을 통한 모임을 가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 집단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원격교육은 기존의 집체교육과는 차별화된 교수학습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 시간, 장소, 집단의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으며, 개별화학습, 협동학습, 동기유발이 가능하다.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학습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특별히 성인교육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비용면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대학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 비용만 부담하게 되면, 그 이후에 소요되는 경비는 저렴해지는 구조의 경제가 발생한다[7].

초기의 우편제도를 이용한 통신교육, 대중 전화 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시대를 거쳐 현재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Web 기반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가상교육의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교수자와 학습자 혹은, 학습자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로 가능해졌다. 스카이프(Skype)나 구글행아웃(Google Hangouts)은 실시간으로 목소리나 동작을 다양한 장소로 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블랙보드(Blackboard)와 무들(Moodle)은 자료의 업로드, 팟캐스트(podcast), 토론 게시판을 제공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즉, 새로운 테크놀러지는 정보, 아이디어, 사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8], 온라인상에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새로운 교수방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창의적인 음악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9].

2008년에 시작된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s)는 대단위(massive) 누구나 무료로(open)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강좌이다. 대학강좌 형식을 표방하고 있으며,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온라인 강좌와는 달리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간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제출 등 다양한 양방향 학습이 가능한 강좌 플랫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00% 온라인 교육을 지향하는 사이버대학과 출석수업과 방송수업을 병행하는 방송통신대학이 있는데, 규모나 학생들의 이동방향을 볼 때 사이버대학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사이버대학은 여러 대학의 컴소사업 형태로, 혹은, 단독으로 설립되었는데, 2001년 7개의 4년제 대학과 2개의 2년제 대학이 설치 인가되었고, 매년 그 수가 늘어나서 현재 21개가 설립되어 있다. 또한, 2009년 한양사이버의 대학원 설립을 시작으로 2010년 현재 경희사이버, 원광디지털, 서울사이버의 사이버대학원이 설립을 인가받았다.

## 2. 온라인 원격교육의 도전

원격교육의 증가세와는 대조적으로 중도탈락률은 전통적 교육프로그램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중도탈락학생비율은 평균 16.6%로 4년제 일반대학보다 약 3배 이상 높았다. 그 원인으로는 학업지속에 대한 개인적인 여건의 어려움 비롯하여, 가상공간에서의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 학위취득에 대한 의욕 상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학습자들이 온라인 교육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인간적 상호관계의 부재와 교수에 대한 접근의 제한성이다[10]. S. Crim(2006)은 온라인 클래스에서 학습자가 느끼는 사회적 실존감과 전반적인 만족감 사이에 유효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온라인 프로그램 재등록의 의지와도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11]. 교수자와 학습자 상호간의 유대관계 결여에서 오는 소외감은 학업동기 상실을 가져 오게 되고 다시 중도이탈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음악교육 석사과정의 학생들은 교과과정의 일부가 아닌 전체 과정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12].

온라인 학위 취득 방식이나 교육내용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외부의 인식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의 한 연구결과는 고용자의 입장에서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취득한 학위를 전통적인 방법의 집체교육 형식을 통해서 취득한 학위와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3]. 오프라인 대학과 비교하여 인지도가 낮고, 그 위상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자긍심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 또한 중도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원격교육을 통한 학업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존재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 또한 필수적이다.

## 3. 온라인 원격교육과 음악교육

음악교육 분야에서의 온라인 원격교육은 다양한 기관과 루트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온라인 음악교육 과정은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과 이용 가능성의 증가, 그리고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면서 점차로 성장하고 있다. 성인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경우, 대학원 학위과정, 훈련된 음악 전문가나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악기 교습을 목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영국 대학원의 경우, 원격교육의 가장 선구적인 학교 중 하나인 Open University가 1970년대부터 전통적인 인쇄물과 방송, 비디오를 통한 음악교육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음악비평, 음악학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University of Sheffield는 세계음악, 음악심리 전공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디지털 음악과정(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음악산업(Birmingham City University), 음악경영(Northumbria University)과 같은 분야에서 석사학위 프로그램이 온라인 원격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University of Edinburgh와 Berklee College of Music의 예에서와 같이 여러 대학이 연합하여 음악이론, 작곡, 연주, 음악 제작과 같은 서로 다른 음악적 주제에 관한 MOOC를 제공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인증된 10여개의 대학에서 음악교육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Boston University는 온라인 음악교육 박사학위과정도 개설해 놓고 있다. 학위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외에도, 전문성 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을 위한 단기코스 프로그램이 온라인 원격교육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고, 원격으로

실시되는 온라인 음악교육에 관련된 연구는 2000년도 이후 대학원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K. Walls(2008)는 온라인 석사학위 프로그램에 등록된 현직교사의 전문성개발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 연구에서 음악 교사들 간의 상호활동, 교수와의 긍정적 상호교류, 현실적인 과제, 수업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만족도를 진작시키고, 전문성개발에 기여함을 연구결과로 보여 주었다[10]. Kos 와 Goodrich(2012)는 어떻게 온라인 석사학위 프로그램이 음악교사의 철학과 교육현장에 영향을 주는지를 관찰하였다. 비록 온라인 프로그램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접근 가능한, 엄격한, 그리고 전문성 개발로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14].

Kruse, Harlos, Callahan, and Herring(2013)은 기악 교육 프로그램 중 특별히 스카이프(Skype)를 통해서 제공되는 피아노 레슨 고찰하였다. 연주나 행위에 바탕을 두고 있는 악기레슨, 노래하기, 달크로즈의 유리드믹스 등과 같은 수업은 읽기자료에 의존해서 진행되지 않는다. 이들은 시각적인 이미지 뿐 아니라, 실시간의 언어적, 시각적 소통이 필요한 분야로 교수자의 행동을 따라하고, 음악적 대화를 창조하고, 즉흥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일대일지도도를 포함한다. 테크놀러지를 통한 실시간 온라인 레슨의 장점들이 있지만, 직접적인 면대면 활동 없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테크닉의 복잡성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한계를 제기하였다[15].

### III. 결 과

NASM에서 음악교육 전공의 석사학위로 공인한 미국 내의 모든 기관들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그 중, 학위 과정을 80% 이상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인된 지 10년 이상 된 대학들을 선정하였는데, Alabama주립 Auburn University, Boston University, East Carolina University, Ohio University, Texas 주립 Stephen F. Austin University,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University of Montana, the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의 8개 대학이다[16]. Boston University를 제외하면 모두 주립대학이다.

#### 1. 입학요건

음악교육 전공 온라인 학위과정의 입학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학부 성적을 비롯하여, 에세이, 교육경력, 개인 인터뷰, 교육경험 여부, 수업영상, 추천서 등을 요구하였으며, 학교별로 다르게 나타났다[표 1].

표 1. 입학요건

항 목	최저 평점 평균	GRE 점수	에 세 이	개 인 인 터 뷰	교 육 경 험	수 업 영 상 샘플	추 천 서	대 략 적 등 록 학 생
Auburn Univ.	2.75	○	X	X	X	X	3	50
Boston Univ.	3.0	X	○	X	○	○	2	100
East Carolina Univ.	3.0	○	○	○	X	○	3	20
Ohio Univ.	3.0	X	○	○	X	○	3	20
Stephen F. Austin Univ.	2.5	X	○	○	X	X	3	20
Univ. of Hawaii at Manoa	3.0	X	○	X	○	○	3	20
Univ. of Montana	-	○	○	X	X	X	3	20
Univ. of S. Mississippi	2.75	○	○	○	X	X	3	20

입학요건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었지만, 오프라인 과정과 크게 다른 점은 없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요구하는 에세이의 경우, 학습의 목적, 진로, 관심분야에 관하여 작성하는 자기소개서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함께, 학부과정에서 작성한 학문적 보고서나 연구계획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Boston University, Stephen F. Austin University, University of Hawaii는 외국학생에 대한 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IBT TOEFL 점수를 요구하여 외국인 학생등록도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세부전공을 지휘나 연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연주 수준을 보여주는 오디오 영상물을 준비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가 90-100%의 매우 높은 합격률을 제시하였으며, 현직교

사나 교육전문가로서 합격이 거절된 경우는 기본자격 요건에 미달된 경우일 뿐이라고 학교 측은 설명하고 있다. 등록된 학생들의 평균나이는 35세 이상이며, 등록 학생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3].

## 2. 프로그램의 특징

학교별 온라인 학위과정의 특징을 학비, 캠퍼스내의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 학위명, 전임교수진의 강의정도, 과목개설 주기, 학위수료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2].

표 2. 프로그램의 특징

학교 (학위명)	학점 당 수강료	캠퍼스 내 수업	전임교 수 강의	과목 주기	최소 기간	최소 요구학점
Auburn Univ. (Master's of Education in Music Education)	574	여름학기 2회 (2일)	대부분	2년	2년, 여름학기 2회	30
Boston Univ. (Master's of Music in Music Education)	768	-	약 절반 정도	3회/1년	1.5년	32
East Carolina Univ. (Master's of Music in Music Education)	217 / 835	3 학점	전체	1년	2년, 여름학기 2회	33-35
Ohio Univ. (Master's of Music Education)	571 / 590	여름학기 2번 (2주씩)	전체	2년	2년	30
Stephen F. Austin Univ. (Master's of Arts in Music Education)	377 / 497	-	대부분	2년	2년	31/36(non-thesis)
Univ. of Hawaii at Manoa (Master's of Arts in Music Education)	593	-	대부분	2년	2년	30
Univ. of Montana (Master's of Music in Music Education)	299.25 / 676.90	여름학기	전체	2년	2년, 여름학기 1	30/36(non-thesis)
Univ. of S. Mississippi (Master's of Music Education)	446.12	여름학기	전체	1년	1년, 여름학기 1	30

미국의 주립대학은 해당 주 거주여부에 따라 학비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인데, 온라인 프로그램인 경우, Auburn University, Boston University, University of Hawaii,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 처럼 그러한 차이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이 수강하게 되며, 해외의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기도 하다. Boston University의 경우 지역적으로 가장 다양한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온라인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의 경우 장학금의 혜택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거의 없다.

수업 조건은 최소한의 캠퍼스 내 교과목 수강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학교가 여름학기 활용하여 캠퍼스 내에서 오프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강좌를 열어놓고 있다. 대부분의 필수 교육과정을 전임교수가 맡고 있어 교육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의 목적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의 선택 과목을 모두 담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과목에서의 전문 강사 강의 비중은 더 높다. 교수진과의 접근성은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담당자에 의하면, 교수진은 학생들을 약 10명의 소그룹으로 나누고, 가장 시간을 정해서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과제에 관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상호작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과목주기는 같은 과목이 다시 개설되는 시점을 말한다. 대부분의 학교가 필수이수과목을 격년으로 개설하고 있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은 약 2년 정도가 필요하다.

졸업 이수 학점은 거의 비슷하게 30학점 정도 인데, 학교 마다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East Carolina University는 기악지휘(35), 합창지휘(34), 교수법(33) 등의 세부전공에 따라 이수 학점수가 다르며, 졸업 프로젝트나 논문 들 중에 선택할 수 있다. Austin University와 University of Montana는 논문을 쓰지 않고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경우 36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학점 인정에 있어서, 다른 학교의 음악프로그램에서 이수한 3-6 학점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Hawaii 대학은 12학점이 인정된다.



10과목정도로 오프라인과정과 차이는 없다. 교과교육학(Foundations of Music Education)과 연구 방법(Research Studies), 음악이론과 같은 공통적 교과목이 필수 이수 학점의 약 반 정도를 차지하며, 필수 이수과목은 모두 온라인으로 개설된다. 나머지 학점은 학습자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과목을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선택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사범대학(College of Education) 소속의 음악교육 석사과정의 경우(Auburn University), 교과교육학 영역의 과목들이 다른 학교들보다 더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어 그 선택의 폭이 넓다. Boston University는 테크놀러지의 음악적 활용에 관한 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으며, 하와이 대학은 학교 규모에 비해 종족 음악학 분야 과목을 많이 개설하여 이들을 교육학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양상블이나 지휘 같은 음악실기 분야를 세부전공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여름학기동안 캠퍼스내의 오프라인 강좌를 듣도록 하고 있었다. 특별주제(Special Topics)는 학기마다 음악교육 관련 주제를 정해서 수업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학생과 교수가 의논하여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2~3회까지 수강이 가능하여, 교수와 협력적으로 프로젝트나 논문을 진행할 때 수강하기에 적합하다.

대부분의 온라인 과목들은 캠퍼스내의 오프라인 과목과 연계되어 있으며 학기 시스템과 동시에 통합되어 운영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임의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학사일정과 시간적으로 동시에 봄학기, 가을학기, 여름학기를 시작하게 된다.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에 비동기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도록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지만, 동시접근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교수자에게 채팅방을 통하여 질문을 할 수도 있으며, 다른 학생들과의 토론 등을 통하여 수업에 직접참여가 가능하다. 과제는 가상강의실에 올려지며, 이는 이메일이나 가상 강의실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다. 시험은 좀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온라인 수강자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나 가까운 근처 학교에서 시험 감독관을 구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 감독관은 시험 문제지를 받고, 규정에 따

라 시험을 운영하고, 완료된 답지를 교수자에게 전달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

#### IV. 요약 및 제언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은 원격교육의 등장을 필수불가결한 상황으로 만들었다. 또한,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곳에서 교육정보를 선택, 저장하며 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격교육은 현 교육 형태를 대체하는 미래의 새로운 교육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원격교육은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온라인 대학원과정이 온라인 학부과정의 수를 넘어서고 있으며, 대학에서 Web 기반 교육서비스 참여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이버 강좌를 통한 학위취득이 가능해졌으며, 다양한 사이버 강좌가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또한, 원격교육은 전문화된 인력의 지속적인 교육의 수단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에서 온라인 음악교육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10여개에 달하고 있다. 음악교육 교과과정 전체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도 있지만[12], 이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원자격증 취득이 아닌 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온라인 수업만으로도 학위 취득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입학요건,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오프라인 형식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어 외형적으로는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음악교육과정의 취지에 맞는 운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원격교육의 양적인 팽창에 비례하여, 온라인 교육과정의 질에 대한 우려 또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원격교육의 교육적 질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그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S. Levy(2003)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의 성공요소로 프로그램의 비전과 계획, 교육과정, 교수자의 연수와 지원, 학생 서비스, 학생연수와 지원, 저작권과 지적재산

권 보장의 6가지를 들고 있다[17]. Palloff와 Pratt(1999)은 테크놀러지에 대한 친숙함, 운영 가이드라인 설정, 학습자의 참여 극대화, 협력 학습, 학습에 대한 반성과정을 온라인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요건으로 꼽고 있다[18].

우리나라의 경우 음악교육 분야 학위취득 프로그램이 온라인 과정으로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질적으로 보장되는 원격교육과정을 위해서 우선, 원격교육 프로그램 개설 절차를 개발하고, 구체적인 단계에 따라서 프로그램개설이 진행되어야 한다. 온라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와 평가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을 하고, 누구를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지식 획득이든, 작업 수행능력 개발이든 학습결과물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학습자들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습결과물과 직결되는 적절한 콘텐츠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개발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것이다.

또한, 적절하게 훈련된 교수자가 양질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또 이를 계속적으로 평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 교육과정에서 교수자의 역할과 책임은 기존의 전통적인 학습 환경에서의 것과는 차별화되기 때문에 온라인 교수자로서의 재교육과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서의 온라인 교육을 위하여, 강의내용을 일제식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학습 내용을 선택하고 여과시켜 학생들의 진지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토론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교수 시스템의 설계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19]. 직접적인 상호작용 없이 학습자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 또한 교수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다. 학생들의 참여, 성취, 수행능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가운데서 그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과 동기유발을 고취시키고, 학습자의 양심과 진실성을 담보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다[20]. 즉, 교수자는 단순히 학습자료, 토의

주제를 인터넷상에 올리고, 이메일을 주고받는 능력이 아닌, 학습자의 협력학습, 다면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능하게 하고, 동기부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온라인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원격교육 교수진의 재교육 여부뿐 아니라, 조교나 기술적 지원에 대한 문제, 지적재산권, 소유권과 같은 행정적인 문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적 문제, 온라인 교육과정의 계속적인 평가를 위한 기준 마련 등도 프로그램의 질적 성공을 위해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프로그램의 질적 성공은 교수진, 행정가, 학생 모두의 공동 작업에 달려 있으며, 프로그램은 요구와 필요에 맞게 계속적으로 진화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교수자의 역량, 학생의 참여, 행정가의 운영전략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가 실시되어야한다. 연구결과는 이론과 실제 사이의 격차를 줄여, 온라인 음악교육의 교육과정과 교육기준을 견고히 하고, 더 나아가 예술교육이나 공연예술 분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온라인 원격교육은 지리적, 시간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1] 오은진, *성인학습자의 학습유형에 따른 e-Learning (원격)학습 효과 제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 [2] J. Sherbon and D. Kish, "Distance Learning and the Music Teacher," *Music Educators Journal*, Vol.92, No.2, pp.36-41, 2005.
- [3] Y. Lee and H. Nguyen, "Get your Degree from an Educational ATM: An Empirical Study in Online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n E-Learning*, Vol.6, No.1, pp.31-40, 2007.
- [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2011-2016)*.
- [5] 박명숙, "온라인 음악교육에서 이러닝 품질이 학

- 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 음악교육공학, 제28권, pp.1-15, 2016.
- [6] 김현수, 최형립, 김선희, “가상교육의 핵심성공요인,” 교육공학연구, 제15권, 제1호, pp.241-264, 1999.
- [7] L. Densford, “Motorola University: The Next 20 Years,” Corporate University Review, Vol.7, No.1, pp.1-9, 1999.
- [8] L. Densford, “Motorola University: The Next 20 Years,” Corporate University Review, Vol.7, No.1, pp.1-9, 1999.
- [9] P. Burnard, “Reframing Creativity and Technology: Promoting Pedagogic Change in Music Education,” J. of Music, Technology and Education, Vol.1, 2007.
- [10] K. Walls, “Distance Learning in Graduate Music Teacher Education Promoting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Satisfaction of Music Teachers,” J. of Music Teacher Education, Vol.18, pp.55-66, 2008.
- [11] S. Crim, “An Examination of Social Presence in an Online Learning Environment,”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UMI No. 3234239), 2006.
- [12] V. Fung, “Perception of the Need for Introducing Flexible Learning in Graduate Studies in Music Education: A Case Study,” College Music Symposium, Vol.44, pp.107-120, 2004.
- [13] J. Adams and M. DeFleur, “The Acceptability of Online Degrees Earned as a Credential for Obtaining Employment,” Communication Education, Vol.551, No.1, pp.32-45, 2006.
- [14] R. Kos Jr. and A. Goodrich, “Music Teachers’ Professional Growth: Experiences of Graduates from an Online Graduate Degree Program,” Visions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Vol.22, pp.1-26, 2012.
- [15] N. Kruse, S. Harlos, R. Callahan, and M. Herring, “Skype Music Lessons in the Academy: Intersections of Music Education, Applied Music and Technology,” J. of Music, Technology and Education, Vol.6, pp.43-60, 2013.
- [16] www.auburn.edu/music, www.bu.edu/cfa/music, www.ecu.edu/music, www.finearts.ohio.edu/music, www.music.sfasu.edu, www.hawaii.edu/uhmusic, www.umt.edu, www.usm.edu/music
- [17] S. Levy, “Six Factors to Consider when Planning Online Distance Learning Programs in Higher Education,” Online J. of Distance Learning Administration, Vol.6, No.1, 2003.
- [18] R. Palloff and K. Pratt, *Building Learning Communities in Cyberspace*, Jossey-Bass, 1999.
- [19] L. Zheng and S. Smaldino, “Key Instructional Design Elements for Distance Education,” The Quarterly Review of Distance Education, Vol.4, No.2, pp.153-166, 2003.
- [20] M. William, “Online Education in School,” The International J. of Educational Management, Vol.14, No.7, pp.315-324, 2000.

#### 저 자 소 개

#### 이 가 원(Ka-won Lee)

#### 정회원



- 1994년 2월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졸업(학사)
- 1996년 5월 : Yale University, School of Music, Master of Music(석사)
- 1999년 5월 :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Doctor of Education(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목원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부교수

<관심분야> : 음악교육 평가, 다문화 음악교육